

시한부 선고 후 알게 된 것들

김가연 기자 rkds0617@khu.ac.kr

『새벽 4시, 살고 싶은 시간』은 시한부 환자의 하루하루와 삶에 대한 성찰을 기록한 책이다. 지난 2020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신민경 씨는 투병 생활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끈기있게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우리학교에서 관광경영학을 전공한 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국제 보건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외 봉사, 아르바이트, 인턴십, 어학연수, 직장 생활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사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시한부 선고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이미 두 번의 암 수술을 이겨

냈기에 이번에도 보란 듯이 극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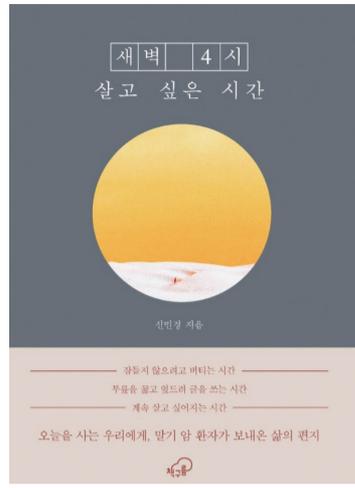
저자는 시한부 환자가 겪는 힘든 점들을 담담히 서술한다. 통증, 우울감, 무기력,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절망이 아닌 투철한 삶의 의지다. 생명을 향한 의지는 고통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났다.

책을 집필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묻자 저자는 “처음 책을 출판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고 말했다.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할까 봐 매일 밤

그날 쓴 부분을 출판사에 보내두고 잤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약착같은 집념으로 글쓰기에 몰두했고 3주 만에 책을 만들어냈다. 집념의 원동력은 절실함이었다고 한다. “저에게는 이런 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시한부 선고 받은 분들은 자신의 삶 마지막에 이런 책을 안 쓰실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책을 완성하고 난 후에는 결국 해냈다는 생각에 매우 행복했다고 한다. 저자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히 다잡은 비결에 대해 “바람직한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오랫동안 단련해 그것을 습관으로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덕에 힘든 일이 있어도 매일 가야할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치열한 생활은 해볼 만



남을 돕기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온 저자는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 가치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러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일 때 좀 계산 없이 뜨겁게 마음을 따라서 치열하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수가 충분히 이해되고 용납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자는 인생을 숙제에 비유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부여받은 소명이

숙제와 같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소명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삶의 끝에 서 있는 저자는 마지막 소명을 다하듯 남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숙제를 잘하고 떠나지는 못하지만, 이 생에서 제가 배워야 했던 것을 배우고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이 글을 볼 당신에게 진심으로 미안했고, 당신을 깊이 사랑했으며, 당신을 남김없이 용서했습니다. (『새벽 4시, 살고 싶은 시간』 192쪽)

그는 죽음이 다가온 후에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다고 말한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자는 우리신문과의 인터뷰 끝자락에서 독자들에게 대한 응원의 말을 전했다. 저자의 말처럼 이 글을 본 모두가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관광 산업 미래 전망 살펴보기

이봄 기자 lbom.kr@khu.ac.kr

우리학교 관광대학원 윤지환 교수가 미래관광연구회(이소윤, 김수정, 김영리, 이사회)와 함께 『넥스트 투어리즘 : 관광의 미래』를 출간했다. 책은 급변하는 관광 산업의 최신 동향을 쉽고 트렌디하게 제시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넥스트 투어리즘 : 관광의 미래』는 관광객의 심리·소비 패턴 변화를 현대 기술 발전 양상과 접목했다. 윤 교수와 미래관광연구회는 다년간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0~40년간 관광 산업에서 나타난 변화를 10가지 재미있는 키워드로 정리하고 있다. 기존의 딱딱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시각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업계 종사자나 관련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여행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다.

저자인 윤 교수는 “관광은 급변하는 사회 구조를 전략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만큼 매 순간 큰 폭으로 변화하는 현 코로나 시대가 관광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넥스트 투어리즘 : 관광의 미래』는 최신 트렌드를 충실히 반영해 관광 업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 (사진=언스플래쉬)

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 사업에 뛰어드는 비전공자들 중 관광 업계 내부의 복잡한 구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관광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이해하



기 쉽도록 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의 집필 의도는 신조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목차별 키워드에서도 엿볼 수 있다. ‘플렉스 시니어’, ‘취향존비시대’와 같이 신조어를 활용했다. 또한, COVID19에 트립(Trip)을 더해 ‘코비트립’과 같은 줄임말을 새롭게 제시하기도 한다. 『넥스트 투어리즘 : 관광의 미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현대인의 여행을 쉽고 재미있게 담아내 MZ세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책 서두에 등장하는 ‘코비트립’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관광을 다룬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럽게 국내 여행으로 전환됐다. 업계에선 앞으로 주력 여행 상품은 소그룹 지인 구성으로 이뤄진 형태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가상현실 기술, 스마트 기술과 AI 로봇의 도입은 사람 간의 교류가 없는 것은 물론 특정 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여행’을 가능케 한다.

유튜브, 트래블(Travel), 브이로그 결합한 ‘유티로’ 항목에선 유튜브를 통해 떠나는 ‘랜선 여행’을 다룬다. 저자에 따르면 여행은 ‘사전에 경험할 수도, 실제로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가 가지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에 여행 업계는 유튜브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여행 브이로그에 주목한다. 다양한 관광 기관과 기업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저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행 관련 상품을 유튜브 앱을 통해 바로 구매하는 등 앞으로 유튜브가 여행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이들이 혼자 여행을 떠나는 빈도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행이란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동행을 구하며 또 다른 관계의 형성을 기대한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SNS에 올려 타인에게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듯 혼자 떠난 여행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상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여행사는 1인 여행 패키지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싱글 룸 숙박을 원칙으로 객실은 혼자 쓰지만 함께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낯선 사람과 서로 대화하고 사진을 찍어주기도 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서울관광재단 이재성 대표이사는 『넥스트 투어리즘 : 관광의 미래』에서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관광의 빛을 보았다”고 말했다. 배상민 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은 관광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해당 도서를 추천하며 “미래 여행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했다.